

치 사

존경하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스님 이하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을 다하시는 로터스월드 회원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로터스월드를 아낌없이 후원해준 사부대중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 그리고 자비의 온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은 전쟁과 기아, 빈곤으로부터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제3세계 국민과 어린이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에서는 매일 2만 5천 여 명의 어린이가 아사(餓死)하고 있고, 1년에 970만명의 어린이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현실은 ‘자비와 나눔’을 실천해온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 뿐 만 아니라, 수행자로서 한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로터스월드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국제구호단체로서 부처님의 정법과 보살행을 실천하고, ‘한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속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현지에 설립한 BWC어린이센터를 방문한 바 있는 저는 세계 어느 국제단체나 NGO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로터스월드의 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 보다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한 로터스월드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한 아동 교육, 인근 지역 개발 사업 등을 보고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와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 스님들은 ‘지역민의 의료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목적센터 건립’을 약속한 바 있고, 오는 12월이면 센터가 건립되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노력과 실천이지만 저에게 있어 이와 같은 경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중요한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고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옛 말에 복(福)의 근원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평화와 공존,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이웃과 사회 그리고 지구촌의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해 자비의 선을 쌓고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로터스월드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한국불교의 인류애와 자비심이 따스한 온기가 되어 지구촌 널리 홍포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년 11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